



저는 김미경수녀입니다. 남동생 둘과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매일 미사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다니며 동생들과 성당 마당에서 노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영세를 받으시면서 성당 전례가 가족 행사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잘 다니던 남동생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광주 가톨릭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와 더 열심히 매일 미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깊은 평화가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과 함께 감사함이 마음속 깊이에서 올라왔고 그때부터 수도성소를 갈망했습니다. 1991년 봄에 남동생을 만나러 광주 신학교에 갔다가 씨튼 수녀님들을 만나고 1992년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와서 짧은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것이 참 좋았고 그 안에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생태사도직을 통해 토종씨앗으로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씨앗을 받는 방법도 배우면서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순환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토종씨앗은 우리 풍토에 30년 넘게 적응된 씨앗으로 농부들 손에서 대대로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생명을 품은 소중한 토종씨앗을 만나게 되면서 다양할 때 풍요롭고 지속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밭에서 일하다 수많은 나무 들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



면 온 누리가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 같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면 농사를 잠시 접어두고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마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도 정말 행복합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속에서 채종 가능한 토착화된 씨앗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여기며 소소한 일상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 현존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Hello, Sisters! I'm Sr. Kim, Mi Kyeong (I). I have two younger brothers and two younger sisters. As a child, following my mother to daily Mass, I enjoyed playing with my siblings in the yard of the church.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my father was baptized, and participating in Catholic liturgy became a sort of natural family event.

One day, a younger brother who was a college student suddenly entered Gwangju Catholic Seminary.

Since then, I began to go to daily Mass with my mother with more passion. One day I had an exceptional experience of inner peace embracing me, and I prayed with gratitude from deep in my heart. From then, I started thinking of being a religious.

In the spring of 1991, when going to see my brother at Gwangju Catholic Seminary, I met our Sisters. I entered in 1992. Joining our community and reflecting on short passages of sacred Scriptures every day was good and gave me the strength for life in the convent.

Four years ago, we learned how to obtain indigenous seeds and started farming with them. Working in our ecology ministry, for the future, we are cultivating sustainable circulative agriculture methods. Indigenous-seeds have been handed over to the farmers for the last thirty years and are adjusted to the Korean soil and wind. Encountering this Indigenous or native seed that has held life for a long time, I realized that diversity could preserve abundant and sustainable energy. Working in the field, I used to look at many trees moving simultaneously by the wind. I thank God because I feel like we breathe with God at this moment. And it seems like the life of the Gospel when we adapt ourselves to nature and live in harmony.



Sometimes it rains, then we cook and visit lonely older people in the village, which makes me happy.

Amid the pandemic crisis, I place myself in the presence of our Lord, who is with me in my daily life. I reflect on farming with the indigenous

seed in our land as an alternative solution for our future in the midst of climate change.

